



요셉의원



격월간

2016년 8월 제 88호

<http://www.josephclinic.org> | www.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이문주 신부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번지 전화 : (02)2634-1760, (02)2636-2476 FAX : (02)2677-5839 E-mail : josephclinic@hanmail.net

필리핀요셉의원 장학사업 호응 높아

초·중등·대학생 62명 선발, 페이스북으로 후원자 모집



필리핀 요셉의원의 올해 장학사업이 본 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2013년 1월 필리핀의 가난한 도시 말라본 시에서 문을 열고 의료봉사와 자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필리핀요셉의원은 최근 초·중등·대학생 62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7월 초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초등학생 41명, 중고생 7명, 대학생 14명 등 모두 62명이다.

이 지역에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돈을 벌기 위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학교에 점심



필리핀요셉의원 앞마당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맨 왼쪽은 이곳에서 사목하고 있는 장경근 안드레아 신부. 가운데 작은 사진은 장학생 명단.

을 싸가기 어렵거나 교통비가 없어 아예 학교에 나가지 않는 어린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필리핀요셉의원은 3년 전 개원 초기부터 어린이 급식과 장학사업을 실시해 왔다.

필리핀요셉의원의 관리와 사목을 맡고 있는 장경근(안드레아) 신부는 “지역 본당의 주임신부님이 추천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일부는 어렵다는



1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4

클로즈업 인터뷰



6

친절서비스교육



8

병원 소식



12

요셉의원 후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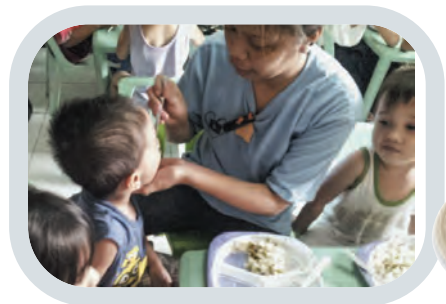
지난 8월 12일 필리핀 요셉의원을 방문한 분당 요한성당 의료봉사팀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소문을 듣고 집을 찾아가 부모를 설득해서 장학생으로 선정해 학교에 보내게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선발된 학생들 중에는 사정이 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이혼해 혼자 일해서 학비를 벌며 공부하는 대학생, 할머니와 함께 살며 맏고를 따서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어린이 등.

SNS로 취지 전하자 지인들 다투어 후원 참여

장신부가 한국의 친지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장학금 확보 방안은 SNS를 활용한 간편하면서도 이색적인 소통방법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취지를 알리고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의 필리핀요셉의원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했다. 액수는 초등학생 월 1만원, 중고생 월 2만원, 대학생 월 3만원이다.

“장학생 62명을 모두 선발한 다음 페이스북에서 후원자를 모집하자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장학금 전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자분들에게는 자신이 누구를 후원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학생의 사진과 이름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적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자 가운데는 전부터 뭔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거나, 미심쩍은 단체들도 있지만 요셉의원이나 필리핀요셉의원은 믿을 수가 있어서 신청을 했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물론 후원자 중에는 비신자들도 적지 않다.

장신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많아 후원자들이 가능하면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후원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름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해마다 의정부성모병원과 가톨릭의료협회, 분당 요한성당 등에서 필리핀요셉의원에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가난한 이들을 진료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필리핀요셉의원에서 어린이에게 급식하는 모습(왼쪽)과 의료봉사단 진료 모습(오른쪽 2장).

+ 필리핀 요셉의원 6월~7월 신규 회원

김다인 김무경 김송이 김유라 김윤수 김재인 김진호 김 철 문명주 문진섭 문진주 민형근 박보라 박새림 박은영 박지원 박지훈 배미화 서호중 손경락 송유나 송인섭 송현우 오경애 유보영 윤유진 이승현 이연자 이원준 이유경 이유정 이유진 이윤석, 이윤재 이정혜 이주영 이지연 이지영 이현욱 임연숙 임영섭 장승연 전명원 정성희 정요람 조문숙 조은주 조현주 최윤경 최준형 한경준
반포4동 중고등부 (총 52명)

+ 필리핀 요셉의원 6월~7월 후원

♥ 헌웃수집 : 노원성당 신자들 ♥ 의류기증 : 박찬임, 동대문시장성당 신자들

+ 2016년 6월~7월 필리핀 요셉의원 - 환자 진료 1,261명, 무료급식 지원 9,350명

쪽방촌 향기 ‘가성비 최고’의 봉사

고 선우경식 원장님의 말씀 중에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하느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다’라는 글을 책상 앞에 붙여 놓고 주문처럼 외우다보니 진료실에 들어가는 자세가 달라진다. 요셉의원에서 오래 일했다고 원고청탁을 받았는데, 아마도 글을 쓰면서 그동안을 돌아보고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

요셉의원에서 진료를 해 보라는 과장님의 권유로 요셉의원과의 연이 시작되었다.

봉사라는 것을 해 본 적도, 생 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과장님도 하시는 봉사활동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시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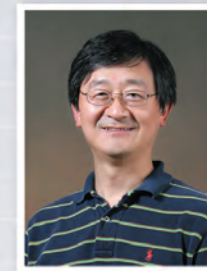
심사숙고를 한 후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서 마치 숙제하듯 나가다보니 한 달에 두 번 진료하는 것이 왜 그리도 빨리 돌아오는지. 또 마음이 아픈 환자가 왜 그리도 많은지...

사실 선배 교수 대신에 진료를 시작한 것이라 선배 교수가 다시 진료를 하면 내 역할도 끝날 거라고 생각하며 다녔다. 하지만 선배 교수는 다른 분의 빈 자리를 맡아서 진료를 하셨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시작하였던 나는 지금도 이곳 요셉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환자가 선생님이다’라는 말을 듣는다. 대학병원에서만 근무했던 나에게는 요셉의원에서의 진료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요셉의원에 들어갈 때의 무거운 발걸음이 진료를 다 보고 나올 때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나의 보잘 것 없는 수고가 다른 이에게는 도움이 되고 나에게는 행복으로 돌아오니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가 최고’인 일임에 틀림없다.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민경준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임교수

환자는 선물이다. 봉사를 하다보면 자신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래서 나도 받

은 것에 감사하며 되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환자를 만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고 선우경식 원장님의 말씀 중에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하느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다’라는 글을 책상 앞에 붙여 놓고 주문처럼 외우다보니 진료실에 들어가는 자세가 달라진다.

요셉의원에서 오래 일했다고 원고청탁을 받았는데, 아마도 글을 쓰면서 그동안을 돌아보고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진료를 하는데 환자가 줄어들면서 진료시간도 한 시간 남짓으로 줄었다. 그런데 요셉의원에는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봉사하러 오는 학생들조차도 많은 시간을 일하고 돌아간다. 이런 분들이 함께 하기에 요셉의원은 더 큰 나눔의 장이 될 것이다.

요즘은 학생 때부터 이미 봉사활동을 경험한다. 그러나 아직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 봉사의 기회는 우연히 찾아올 수 있다.

거절하지 않고 잡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커다란 은혜로운 선물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 클로즈업 인터뷰 | 개원 29주년을 맞으며 |

29년 봉사한 요셉의원의 '산 증인' 최동식 방사선사

“응급촬영 재촉하던 선우원장 모습 눈에 선합니다”



생전의 선우경식 원장

“1985년 신림동 ‘사랑의 집’에서 의료봉사 할 때 선우 원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선우 원장은 가톨릭의대 학생회 지도교수로 청진기 같은 간단한 장비만 가지고 학생들과 의료봉사를 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달동네 환자들이다 보니 결핵환자들이 제법 많았지요. 확진을 하려면 X선 촬영과 객담 검사가 필수적이어서 병원을 열면서 X선기와 임상검사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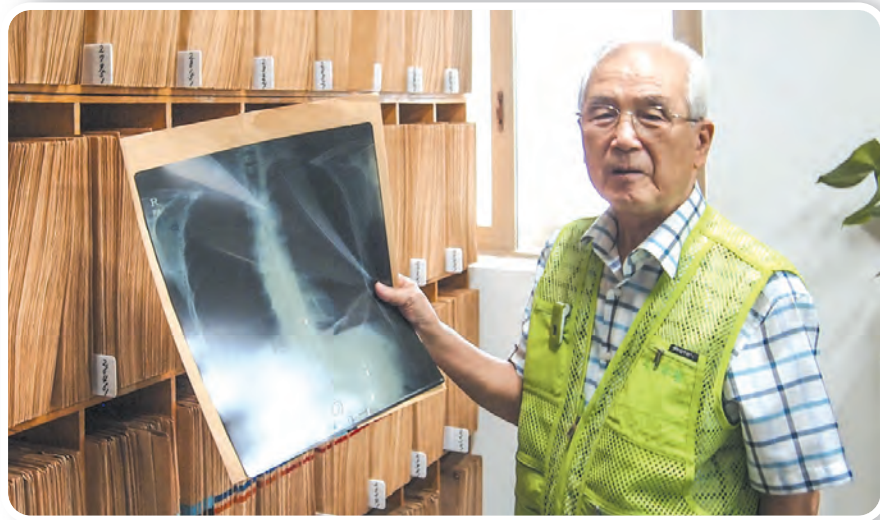
“선우원장, 빨리 와 응급환자 촬영하라고 직장으로 전화”

마침 무료 자선병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의 한 병원에서 쓰던 장비를 기증했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 선량이 300mA짜리로 공간을 많이 차지했다. 수소문 끝에 강남성모병원 방사선과 과장의 주선으로 동아X레이 회사에서 100mA짜리로 교환, 설치해 주었다. 1988년 9월부터 X선 장비가 정식 가동되자 당시 해군병원에 근무하던 최선생은 근무지에서 오후 5시에 요셉의원으로 퇴근해 5시30분에 저녁식사를 한 후 바로 촬영에 들어갔다.

오는 8월 29일로 요셉의원이 개원 29주년을 맞는다.

개원 초부터 30년 가까이 의료봉사를 해 오신 분이 여럿 있으나 최동식(요셉·80) 방사선사는 개원 전인 1985년부터 고 선우경식 원장과 고락을 함께 해온 요셉의원 산 증인이다.

최선생으로부터 요셉의원 영상의학실 장비 구축에 얹힌 애기와 선우 원장에 대한 추억을 들어보았다.



“1989년 7월 국민의료보험이 되기 전에는 저녁 때 10여 명씩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결핵환자 유병률이 0.5% 정도로 상당히 높았어요.”

선우 원장은 좀 위중하다 싶은 환자가 있으면 최선생이 직장에 있던 집에 있던 수시로 와달라고 해서 촬영을 부탁했다. 언젠가는 낮에 직장에 있는데 선우 원장으로부터 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달려가 보니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환자가 신음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X선 촬영을 해보니 위장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렇게 큰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견뎌나 신기할 정도였죠. 환자는 알콜의존증 환자였는데 선우 원장이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튿날 다행히 수술이 잘



요셉의원에서 20년간 써오던 수동식 X선 촬영장비는 2008년 L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자동식으로 교체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손에 염색약을 묻히며 필름을 현상하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최동식 선생은 요셉의원에서 수동식과 자동식 장비로 약 4만장의 X선 사진을 촬영했다.

Interview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심이 되더군요.”

97년 5월 1일 신림동에서 영등포로 이사온 후 지금의 건물을 병원용으로 쓰기 위해 넉 달 여에 걸쳐 공사를 했다. 이때 X선 기기도 다른 짐들과 함께 옥상에 올려놓고 천막을 쳐서 보관을 했다. 그러나 원래 낡았던데다 실외에 내놓다 보니 그만 녹이 슬어서 쓰기가 어렵게 됐다.

“원장님과 장비 때문에 한동안 고민을 했죠.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하느님이 도와주시는지 그때 어떤 방사선과 의사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똑같은 장비를 기증했어요.”

X선 장비 2008년에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교체

당시는 촬영한 X선 사진 필름을 방사선사가 직접 암실로 가져가 약품을 써서 현상을 해야 했다. 최선생은 “현상액이 염색약이라서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아 항상 손톱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며, “옷에 현상액이 묻어 몇 벌을 버린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수동식 장비가 자동으로 바뀐 것은 2008년 4월, LG복지재단에서 현재 쓰고 있는 500mA X선 장비를 기증했다. 용량이 높으면 촬영시간이 단축돼 환자가 숨을 길게 참지 않아도 되고, 사진도 매우 선명하게 나온다. 최선생은 이 장비와 옛 수동식 장비로 요셉의원에서 4만여장의 X선 사진을 찍었다.

“이 장비가 설치된 일주일 후에 안타깝게도 선우 원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새 장비 들어온다고 무척 좋아하시면서 농담으로 고사라도 지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최선생은 병원 초창기 어려웠던 시절 업무가 끝나고 선우 원장과 술 한 잔씩 기울이며 나누던 이야기 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주위에서 돕는 사람도 많았지만 후원으로 운영하는 무료 병원이 오래 버티겠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았다.

“언젠가는 선우 원장이 한 3년 정도만 하고 물러날 생각이었는데 후임자가 없어 발목을 잡혔다며 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이면 또 열심히 환자를 보는 모습이 언제 그랬느냐 싶어요.”

배고픈 환자들에게 밥을 지어줄 쌀이 떨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있는 가톨릭의대 동문들로부터 샘플 약을 받아 처방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선우 원장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환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던 ‘성인 같은 분’이었다고 최선생은 기억한다.

조만간 PACS 구축해 ‘본격 디지털 시대’로

한편 요셉의원 영상의학실은 2013년 5월 장민훈(요셉) 방사선사가 안전책임자로 있을 당시 X선으로 촬영한 사진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FCR Prima)를 설치했고, 조만간 영상전송 시스템(PACS)을 구축해 ‘본격 디지털 시대’로 진입할 계획이다. 현재 요셉의원 영상의학실에는 최동식 선생을 비롯해 장민훈(요셉), 유상길(스테파노) 님 세 사람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기획특집

친절서비스 교육

‘긍정 에너지’ 채워 함께 나누어요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라’라는 1-2-3화법이 지금도 호응을 얻고 있어요. 경청(敬聽)이란 한자어를 풀이해 보면 ‘머리를 기울여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현희

에듀인사이드 대표

찾아온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고 기쁜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함께 나눈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관계는 사실 훈련을 통해, 나아가 습관으로 굳어져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다.

요셉의원 직원과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7월

1일과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담당한 이현희(요셉 피나) 에듀인사이드 대표는 대한항공 승무원 시절의 경험과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대한 다년 간의 연구를 통해 재미있고도 짜임새 있는 강의로 참석자들을 사로잡았다.

먼저 서비스의 핵심인 친절이란 무엇일까. 이대표는 “상대방이 원하는 서비스를 필요할 때 바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요약해서 말했다. 은행이나 전화상담사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이들은 마주하는 고객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교육도 많이 받고 자세도 나름 갖춰져 있다. 그러나 상대하는 고객들의 성격이나 매너가 다양하다 보니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요셉의원에는 술을 먹고 오는 환자, 큰 소리 치거나 폐를 쓰는 이들도 있어 고충이 따르는 게 사실.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넉넉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은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표



긍정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이를 슬기롭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하며,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익혀두어야 한다.

현하기, 둘째 감정을 중화시키는 법 익히기, 셋째 남과 상대방의 장점 찾기, 넷째 감사하기를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자신의 감정상태를 파악하면 고객의 감정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응대가 가능하다. 가능하면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고, 부

정적인 감정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잘 표현할 방법을 찾아서 연습해 보면 좋다.

“나와 상대방의 ‘장점 찾기’로 긍정에너지 80% 충전”

두 번째로 감정 중화하기는 화가 많이 났을 때 이를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대표는 화장실 같은 조용한 장소에 가서 편안한 자세로 숨을 고르는 심장호흡법을 추천했다.

“1단계는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해보고, 이어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화가 난 환자나 자녀들에게도 적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긍정 에너지 충전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장점 찾기. 자기 자신과 대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장점을 각각 50개 정도 찾아서 적어보는 것이다. 이대표는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며, “장점 찾기를 하면 긍정 에너지의 80%는 채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 역시 가슴을 편하게 해 긍정 에너

지를 채워 준다. 이대표는 “심장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뿜 때는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낄 때라고 한다”며, 참석자들을 그룹으로 나눠 서로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반복 실습토록 했다.

“인사할 때는 반드시 눈 마주쳐야”

8월 5일 이어진 두 번째 교육에서는 좀더 실제적으로 ‘호감 가는 이미지 만들기’를



이대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인사 ●성의 없는 인사 ●말로만 하는 인사 ●무표정한 인사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하는 인사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안 하느니만 못 하다”고 말했다.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상대방에게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면 먼저 첫 인상이 중요하다. 첫 인상이 결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지만 나쁜 첫 인상을 좋게 회복시키려면 48000번의 노력과 60번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표는 “첫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 중 시각적 요소가 55%, 청각 요소가 38%, 말의 내용이 7%로 알려져 있는 만큼 먼저 자연스런 표정 연출법을 익혀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표정이 자연스러우려면 앞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긍정 에너지가 충만해 있어야 하고 이런 에너지를 우아한 미소로 표현하면 백점이다.

물론 미소도 훈련이 필요하다. 눈썹을 위 아래로 치켜 올리는 눈썹운동, 마찬가지로 눈동자를 위 아래로 굴리는 눈운동, 공기를 불룩하게 입에 물고 오른쪽 왼쪽으로 불을 부풀리는 불운동, ‘아 이 우 에 오’를 순차적으로 발음해 보는 입운동을 한 후 환하게 미소를 지어본다.

우아한 미소에 이어 ‘호감 가는 이미지’의 두 번째 덕목은 올바른 인사법. 이대표는 ‘인사의 3대 포인트’로 ●내가 먼저 ●상대방에 맞추어 ●칭찬 한마디 덧붙이

기를 제시했다. 보는 사람이 먼저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간단한 인사말에 안부를 묻거나 칭찬을 덧붙이면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인 인사법으로는 남자는 팔을 바지 재봉선 양 옆에 붙이고, 여성은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서 배꼽 아래로 모으고 밝게 인사를 건넨 다음 허리를 굽힌다. 목례는 15도, 보통례는 30도, 정중례는 45도 정도로 허리를 굽히되, 얼굴에는 자연스런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한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라”

고객과 인사를 나눈 다음에는 질문과 대화가 오가게 된다. 대화는 일방이 아닌 양방향의 소통으로 특히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대표는 서비스 불만족의 요인으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다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 응답한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와 같은 소통의 문제점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방법이지만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쳐라’라는 1-2-3화법이 지금도 호응을 얻고 있어요. 경청(敬聽)이란 한자어를 풀이해 보면 ‘머리를 기울여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말을 건넨 때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세요’라는 명령형보다는 ‘~해주시겠습니까’라는 의뢰형이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이며, 자칫 반말로 들릴 수 있는 반토막말을 쓰지 않고 ‘~요, ~지요’체와 ‘~다, ~까’체를 적절히 사용한다. 또 무엇을 물었을 때 ‘모릅니다’라고 부정형을 쓰기보다는 ‘알아봐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긍정형 표현이 호감을 준다.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과 같은 양해의 표현도 고객의 불만족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필수어법이다.

이대표는 “지금까지의 강의를 요약하면 입도 아니고 머리도 아닌 가슴으로 소통하자는 것”이라며, “표정이나 인사, 대화는 연습이 필요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내 습관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처음에 당신이 습관을 만들려라, 그러면 습관이 당신을 만들 것이다”라는 말은 친절 서비스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격언입니다.”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네가지 방법



병원소식



서울대병원 '여름나기 생필품' 전달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이 6월 29일 영등포 요셉의원에 '사랑나눔 여름나기 생필품' 300세트(1000만원 상당)를 전달해 왔다. 이번 후원 물품은 남성용 속옷, 여름용 양말, 무가당 두유 등으로 지난해 말의 기증품 200세트에 비해 늘어난 규모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요셉의원 설립자인 고 선우경식 원장 기념실에서 가진 전달식에서 "뜨거운 더위 속에서 가난한 환자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드리는 작은 정성이 이곳을 찾는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주 요셉의원 원장신부는 생필품을 기증받고 "매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고 "가난한 환자와 쪽방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정성을 잘 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전달된 생필품은 2014년 5월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문을 연 상설 나눔 플리마켓인 '착한 가게'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마련됐다.

'착한 가게'는 병원 환자와 가족, 교직원,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작돼 지금까지 약 4천만원의 수익금을 만들어 저소득층 환자 돕기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쓰고 있다.

서 원장 일행은 전달식 후 요셉의원 각층의 시설과 진료 모습을 둘러보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무연고 환자 장례 주관 '요나 선종봉사회' 발족

요셉의원에서는 그동안 가족들과 단절돼 혼자 살거나 연고 없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러왔으나 이를 좀더 체계화하기 위해 '요나 선종봉사회'를 출범시키고 7월 14일 발족 미사를 봉헌했다.



요나회 회원은 현재 사회사업팀 직원 한 명을 포함해 자원봉사자와 환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각 회원들은 소속 본당에서 연례회 활동을 했거나(1명: 10년 활동), 현재 하고 있고(2명: 10년 이상, 30년 이상), 2명은 국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문주 원장신부는 이날 미사에서 요나 선종봉사회 회원 모두에게 안수하고 장례도구를 축성했다. 요나 선종봉사회는 앞으로 요셉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사망했

을 때 입관, 연도, 발인 등 장례 절차를 주관하며, 연례회원들은 이전처럼 월례 정기모임을 통해 요셉의원 환자로 치료받다 사망한 연령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게 된다.

음악치료 위해 피아노 기증 받아

음악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군자(크리스티나) 교수가 7월 7일 소속본당에서 기증받은 피아노를 다시 요셉의원 음악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선해 재기증 받았다. 김교수는 매주 목요일 오후 제자들과 함께 요셉의원 4층 다목적 도서관에서 30여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함께 노래 부르기' 등 음악치료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기증받은 피아노는 삼익악기 제품으로 특별한 목재를 사용해 울림이 맑고 크다. 김교수팀은 '쪽방촌 화음'을 가다듬어 앞으로 합창단으로 육성할 꿈을 키우고 있다.



요셉의원 도서관 도서 171권 구입



연 기술 과학 40여권 △역사 언어 철학 60여권 △예술 및 기타 20여권이다. 요셉의원 도서관은 하루 15명 안팎의 쪽방촌 이웃들이 찾아와 책을 읽고 있다.

요셉의원 4층 도서관에서 2016년도 영등포구(서울시) 도서관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차로 171권(187만9000원)의 도서를 구입해 비치했다. 이번에 들어온 도서는 장르별로 △문학 40여권 △종교 10여권 △사회 자연 기술 과학 40여권 △역사 언어 철학 60여권 △예술 및 기타 20여권이다. 요셉의원 도서관은 하루 15명 안팎의 쪽방촌 이웃들이 찾아와 책을 읽고 있다.

♥ 환자 스토리

친절한 치과 치료에 감동받은 전성우 씨

종이꽃 선물에서 피어나는 희망



"김 치위생사님이 조용하면서도 항상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병원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취미로 배나 꽃 같은 것을 만들고 있어 그중 잘 된 것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셉의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환자가 간호팀의 친절하

안내에 고마움을 느껴 색종이를 접어 만든 예쁜 장식품과 꽃을 선물했다. 선물을 건넨 환자 전 씨(53)는 "큰 선물도 아니어서 내세울 것도 못 된다"며 멋쩍어했다.

김 치위생사는 "전성우님은 치아와 잇몸 상태가 나빠 지난 4월부터 틀니 사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오고 계신데 여주에서부터 영등포 병원까지 먼 거리를 빠지지 않고 오가는 성실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환자 전 씨 역시 사연이 있다. 일찍부터 제화기술을 배운 그는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서 17세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했다고 한다. 일을 끝내고 동료끼리 한 잔 하던 것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폭음으로 바뀌었다.

"45세 무렵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당시 돈을 빌려서 구두 제조업을 시작했는데 수출 길이 막히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해도 봉급을 이전의 30%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 들어앉아 한달 동안 술만 마시기도 하고... 엉망이 됐죠."

전 씨는 얼굴로 보서는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 흰칠한 이목구비에 점잖은 가장의 모습이다. 그런데 미혼이란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삶이 더 훈훈하지 않았을까.

"이상하게 결혼을 못 했어요. 몇 번 사귀던 여성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던 여성은 결혼을 좀 늦추자고 해서 성사가 안 되다 35세가 넘어가니까 여성들과 연결이 끊어지더군요."

결혼에는 아직 자신이 없다. 고관절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걸어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앉아서 무슨 일을 오래 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러나 50대 초반이면 요즘에는 '청년'에 속한다.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병원에서 퇴원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겠다는 강한 자활 의지일 터. 그가 전한 예쁜 꽃처럼 요셉의원 식구들은 그가 가슴에 숨겨둔 희망의 꽃이 언젠가는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종 수술 받은 중국 난민 원미행(가명) 씨

"무료 수술과 친절한 진료에 감사"

지난 8월 3일 요셉의원에서 엉덩이 지방낭종 제거 수술을 받고 이틀 뒤인 5일 다시 병원을 찾은 중국 난민 원미행(남·62) 씨는 수술 상처가 잘 아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다.

"요셉의원에서 2년 여 동안 무료로 당뇨와 고혈압 약 처방을 받아온데다 수술까지 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씨는 2013년 4월 우리 나라로 들어와 미국대사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미 대사관측에서 받아주지 않자 10일 동안 길바닥에서 소리 없는 농성을 벌였다. 그러다 한 한국인이 사연을 듣고 우리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해주어 현재 서울 모처의 난민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국 허난성 난양시에서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죠. 군에서 하나를 빼앗아간 후 나머지 건물을 팔자 다시 거액을 내놓으라고 해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내와도 이혼을 했다. 장성한 아들은 중국에서 살고 있고, 대학생인 딸은 말레이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다가 한국에 와서 개신교 교회에 나가며 지난해 5월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어 언젠가는 미국에 가서 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요셉의원의 보살핌과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봉사자 코너

간호팀 ‘20년 봉사 감사패’ 받은 박봉은 씨

“규모도 커지고 봉사자들 늘어나 다행”



“처음에 성당 레지오 봉사활동차 요셉의원에 들렀던 것이 인연이 돼 어느새 20년이 되었네요. 욕심 같아선 더 하고 싶지만 일을 하게 된 딸 대신 외손주를 돌봐야 해서 할 수 없이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6월 20일 일과 후 미사시간에 이문주 원장신부로부터 ‘20년 봉사’ 감사패를 받은 박봉은(수산나·66) 여사는 “내 일처럼 해오던 봉사를 마감하는 것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여사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병원의 취지에 공감해 허드렛일이라도 하겠다며 봉사 일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은 진료실과 접수실을 오가며 환자들의 진료 차트를 나르는 업무.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봉사 초기 출퇴근 때 병원 부근 쪽방촌 사람들과 겪었던 일이 추억의 하나로 남아있다.

“처음 봉사를 왔을 때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서 냄새도 나고, 지나갈 때는 술에 취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한달 만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같은 레지오 단원들이 요셉의원에서 봉사하는 것을 ‘좋은 일 한다’고 격려해 주고, 함께 봉사를 나오는 사람도 생겨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병원 주변 쪽방촌에서 오는 환자 분들이 많은 편인데, 퇴근할 때 제 얼굴을 아는 이들이 지나가는 저를 불러서 과자를 받으라고 해요. 그때마다 창피하기도 해서 사양했지요. 그러면 다음에 병원에 와서 성의를 무시했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중에 낮이 익고 나서는 서로 얼굴이 마주치면 웃는 사이가 됐지요.”

박여사는 “이렇게 맺어진 쪽방촌 사람들과의 20년 인연이 조금은 멀어지게 돼 섭섭하다”며, “요셉의원이 20년 전보다 규모도 커지고 봉사자들도 늘어나 부담 없이 떠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 후원의 손길

꾸준히 따뜻한 정 보내주신 하정자 씨

“돌아가신 남편 뜻 이어갑니다”

하정자 여사는 2011년부터 요셉의원을 후원해 오던 남편 서정신(2015년 작고) 씨가 돌아가시자 남편의 뜻을 이어 요셉의원에 적지 않은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있다. 이번 8월 초에도 “남편의 기일에 맞춰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연락하고 100만원을 전해왔다. 2011년 당시에는 남편 서정신씨 명의로 월 5만원 씩 후원금이 전달됐으나 남편 작고 후에는 액수가 늘어나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여사의 깊은 정성을 느끼게 한다. 하여사는 “그냥 남편이 해오던 일에서 형편 닿는 대로 조용히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후원자 서명화(요셉피나) 씨

“밀린 방세라도 보태세요”

요셉의원 4월호 회보에 소개된 파키스탄 난민 아르 바토(55)씨 가족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지난 6월 14일 요셉의원 정기후원자인 서명화씨가 5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가톨릭 신자인 아르 바토씨 가족 9명은 종교 탄압을 피해 3년 전 우리나라에 입국했으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취업이 제한된데다 아들이 일하다 다치고 손녀는 심장전공, 머느리는 결핵, 자신도 천식 등을 앓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명화씨는 “끼니는 걸러도 기도는 잊지 않는다는 아르 바토씨가 하루빨리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자취 생활 대학생 전OO 자매

“용돈 절약해 나눔 위해 씁니다”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 두 자매가 용돈을 아껴 모은 후원금을 들고 병원을 찾았다. 홍익대와 인하대에 재학 중인 이들 자매는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는 요셉의원이라는 곳을 도와보라”는 부친의 말을 듣고,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8월 11일 한낮에 땀을 흘리며 병원을 방문했다. 자매의 부친은 멀리 김해에 살며 요셉의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자매는 “기회가 되면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자그마한 봉사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 후원 및 기증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6월~7월)

강지연 강희주 고인순 고일구 고혜란 공선구 권성희 김나현 김동명 김동석 김수연 김정옥 김주현 김혜정 김효성 김지연 박관희 박귀홍 박길선 박대현 박인구 박정심 박종림 서경숙 서보석 손정옥 실비아 안성철 양예주 양정현 양지은 이동번 이수진 이애경 이영자 이은자 이은자 이춘화 이현희 이현희 임성은 임종인 임 선 장정숙 장지영 전주영 정경환 주연우 현성순 황인권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네오메디칼 세화정밀 한국이문팜 한진덴탈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PMS : 생수 3박스 ♥고창 : 오디 3박스, 블루베리 1박스, 블루베리즙 1박스 ♥공향성당 홍수산나 : 참외 1박스 ♥구로3동성당 물별유치원 : 쌀 125Kg ♥김보경 : 쌀 20Kg ♥김정호 마티아 : 감자 2박스, 양파 1박스 ♥김평만 신부 : 두부 1박스, 감자 3박스 ♥목5동성당 : 쌀 100Kg ♥박덕순 : 아채 1봉지 ♥박주희 : 감자 4박스 ♥서울대병원 : 두유 300박스 ♥안동교구 김동국 : 쌀 400Kg ♥양재동 쌀창고 : 쌀 680Kg ♥우리농 : 수박 2통 ♥이춘화 켄마 : 백일떡 4박스 ♥임옥순 막달레나 : 김치 16박스 ♥착한 과일 : 바나나 5박스 ♥최현숙 안나 : 쌀 200Kg ♥코스트코 : 빵 9개트

♥토마스의 집 : 수박 5통 ♥파리바게트 : 빵 28박스 ♥푸드뱅크 : 빵 5박스, 화과자 10박스, 음료수 7박스, 감자 5박스 ♥한사랑공동체 : 빵 25박스, 카스터드 20박스 ♥함께하는 집 : 빵 9박스, 망고주스 10박스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공향성당 홍수산나 : 옷 2박스, 베개 1박스 ♥김용봉 : 옷 1박스 ♥김응남 : 옷 2박스 ♥대방동성당 : 신발 250켤레, 신발 8박스 ♥동대문시장성당 : 옷 5박스 ♥목5동성당 : 신발 1박스 ♥박영미 : 옷 4박스 ♥서승현 : 옷 1박스 ♥서울대병원 : 팬티 런닝 양말 각 150개 ♥송근교 : 옷 3배낭 ♥윤인자 : 이불 6채 ♥이성원 : 신발 1박스, 옷 1박스 ♥익명 : 의류 5박스 ♥최윤라 : 옷 1박스 ♥태웅구 베드로 : 옷 2박스

✦ 의료기·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CJ : 보그메트 ♥강동희 약사 : 텐텐 외 1종, 한방파스 ♥김미향 약사 : 일회용 주사기 7박스 ♥네오메디팜 : 미코실 외 3종 ♥뉴서울 성모요양병원 : 리피타틴 1종 ♥다일천사병원 : 알카파워 ♥온누리약국복지회 : 로가렉신 ♥유한양행 : 무질콜 외 3종 ♥제일한방 : 한방파프 ♥평화 온누리약국 : 하루날디 1종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13종

✦ 집기 및 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박영미 : 주방용품 1박스, 전기장판 1개 ♥씨엔피 : 건국우유 2박스 ♥아가양 : 물티슈 4박스 ♥영등포우체국 금융팀 : 치약 2박스 ♥함께하는 집 : 컴퓨터 2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나오신 분

● 의사 : 유세화(호흡기내과) 여수동(피부과)

김인규(한방과) 최황순(한방과)

김완태(한방과)

● 법률상담 : 황인규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장) 이승희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 일반봉사 : 양은희 이민구 천명진 이명희(이상 사공미 미용봉사단체) 박승우 문효인 최원호(이상 부속주회 청원자) 강효정 고수진 권주희 김경애 김고운 김문주 김민지 김성연 김수민 김수연 김요섭 김인규 김태영 김희영 박세경 박세리 양 인 염상은 이선재 이수영 이승덕 이승희 이영재 이종현 장은빈 전주영 정경화 정민석 정상석 정유나 최강지

✦ 우리 병원에서 지원한 기관

P.M.A, RSNET, 고창 요셉의 집, 광적성당(주말진료), 김보경, 뉴서울 성모요양원, 대방동성당, 목동의 집, 사랑의 까리따스 공동체, 삼청동 자매, 성가복지병원, 수선화의 집, 안동교구(영양, 문경성당), 양양 성글라라 수도원, 우리물터, 은혜로온 집, 의정부교구(잠비아), 작은자매 관상수녀회, 장현봉, 제기동 프란치스코의 집, 제주 성글라라 수도원, 지원한 기관, 쪽방, 케냐 의료선교원, 토마스의 집, 필리핀요셉의원, 한울타리 공동체, 함께 하는 집, 허정석

요셉병원 월별 환자 진료 수	
2016년 6월	2,033명
2016년 7월	1,997명
개원 이후 총 진료 인원	
614,825명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마태 25:40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0년 가까이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배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회원 가입방법

1. 은행 자동이체 후원 신분증과 도장·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KEB하나은행(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2. 지로납부 후원 후원 담당자에게 전화(070-4688-3416)로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용지를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용지(지로번호 7522950 예금주: (북)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 직접 방문 후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요셉의원 4층 병원 사무실(총무팀)로 직접 방문하셔서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필리핀요셉의원을 도와주실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005-201-940450	(북)서울가톨릭요셉의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요셉의원 구내

♥ 각종 모임 및 서비스 안내

+ 식사나눔



시간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 이·미용서비스



시간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환관

+ 목욕서비스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 단주모임(A.A모임)



시간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 음악치료 및 인문학강의



시간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 법률상담



시간 1, 3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휴게실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